

진코로와 겨울 시장

스와초는 매년 1월이 되면 활기가 넘칩니다. 1월달에 4일 동안 겨울 노점시장이 열리는데, 지역 특산 음식과 수공예품 그리고 ‘진코로’라는 불리는 특별한 길조 물품을 사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한겨울에 도카마치에서 열리는 ‘세키이치’는 에도시대(1603~1867)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명칭은 ‘연말시장’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1월이 음력으로 1년의 가장 마지막달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수 개월에 걸쳐 만들어 둔 대나무 세공이나 짚 세공 등의 물품들을 시장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두가 눈 위에 물건을 펼쳐놓고 물물교환을 하거나 가격을 흥정하면서 필요한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140년 이상 전부터 쌀가루로 만든 알록달록한 진코로라는 작은 인형들이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이 이름은 원래 ‘개’나 ‘강아지’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꽃이나 작은 동물, 십이지 등 길조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기념품이나 길조의 상징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쌀가루가 건조되면서 인형에 금이 가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진코로’에 금이 많이 갈수록 새해의 운세가 좋아진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겨울 시장은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품을 교환하기 위한 장이라기보다 축제행사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해졌지만, 진코로를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관습이며 손님들은 마음에 드는 진코로를 손에 넣기 위해 아침부터 긴 줄을 서곤 합니다.